

# 한옥마을 수놓은 한복 '시선 집중'

## 전주 세계슬로포럼 & 슬로어워드 개최

## 해외연사 등 패션쇼 참여... 이색 풍경 연출

## 매일 넷째주 토요일 '한복의 날' 지정

생활 속 한복착용문화 확산에 나선 전주시가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문화행사를 열었다.

시와 (사)전주패션협회(대표 최경은)는 1일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전시관 문화마당에서 2017년도 마지막 한복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일부터 3일까지 전주한옥마을에서 진행되는 '제1회 전주 세계슬로포럼&

슬로어워드'에 발맞춰 한복 등 슬로시티 전주만의 매력을 전주를 찾는 해외연사들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전통무용 보존활동을 하는 시니어 단체의 전통춤과 초등학교생들의 악기연주, 대학생 동아리의 사물놀이 등이 진행돼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한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한복퀴즈대회가 열리고, 한복홍보 판넬도 설치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주에서 활동하는 유명디자이너의 한복소개로 문을 연 패션쇼도 진행됐다.

패션쇼에는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에 참가한 해외연사와 슬로어워드 수상자 등 11명이 직접 한복을 입고 패션쇼에 참여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돼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한복문화행사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9월 전북혁신도시, 10월 송천동 오송초등학교에서 한복문화 활성화와 행사를 개최해 왔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통복식인 한복을 가장 자주 목격할 수 있는 한옥마을에서 개최하는 한복문화행사는 한옥과 한복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문화상품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옷이 우리 시의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눈에 띄는 문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한복 문화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복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매일 넷째 주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해 한복을 입고 경기전에 입장하는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 내달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 후백제 역사 강좌 열린다

1000년 남도록 역사에서 잊혀진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이나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후백제 역사에 대해 알리기 위한 문화강좌를 연다.

시는 오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전주향교문화관 강당에서 '천년역사 후백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역사문화 강좌를 진행한다.

후백제와 견훤에 대한 시민들의 역사 정립을 위해 시와 후백제 역사문화 다올마당이 함께 준비한 이번 강좌는 8주 동안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후백제에 대한 주제별 강좌와 답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는 900년부터 37년간 후백제의 도읍이자 후백제의 흥망을 함께 한 도시로, 전주와 전주 인근 지역에는 후백제와 관련된 많은 유적이 남아 있다.

이에, 시는 전주를 도읍삼아 삼국통일의 꿈을 펼쳤던 후백제와 견훤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전년을 이어 온 후백제 역사의 6개의 주제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고, 전주지역에 남겨진 후백제의 공성과 도성의 흔적을 살펴보는 2차례의 답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후백제 역사문화 강좌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오는 3일까지 전주 시청 전통문화유산과(063-281-5358)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 관계자는 "전주는 견훤이 삼국통일의 꿈을 꾀던 후백제의 심장부였다"라며 "이번 강좌와 답사를 통해 견훤과 후백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여 왕도로서의 자긍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 3조원대 교육금고, 농협은행 '차지'

### 도교육청 우선지정대상 선정

### 향후 4년간 자금업무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의 예산을 향후 4년간 관리할 교육금고로 농협은행이 우선지정 대상 은행으로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오후 도의 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와 전북은행이 제출한 교육금고 신청 제안서를 평가, 농협은행을 교육금고 우선지정 대상 은행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3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9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19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9점) 등 5개 항목 등 전체 항목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농협은행을 교육금고로 선정했다.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도교육청은 9월 27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 18일 교육금고 지정 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교육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3조원대의 교육감 소관 현금의 출납·보관,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의 예치·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창업지원단, 국제박람회서 식품기업 홍보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이동환)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해 전북 지역 식품기업을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시장개척단(베트남)을 시작으로 이번 서울국제식품산업전까지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여 수출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는 전북대 창업지원단 가족기업을 비롯한 전북 도내 식품 초기 창

업기업 등 총 10개 기업이 참여하여 국내·외 바이어와 일반 관광객을 상대로 기업홍보와 제품을 판매했다. 행사 기간 동안 총 50여건의 바이어 매칭이 진행됐고 국내 대형마트를 비롯한 홈쇼핑 MD들의 큰 관심이 있었으며 해외 바이어들의 제품 상담 및 구체적 견적요청 등 활발한 미팅이 이뤄졌다.

전북대 이동환 창업지원단장은 "창업기업의 수출과 매출증대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전시회 참여에 적극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왼쪽 첫번째)가 최근 인도 트리니반드럼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 생체재료학회에서 최고 연구자에서 주는 찬드라 샤르마 대상을 수상했다.

## 생체재료 분야 최고연구자 탄생

**전북대 강길선 교수**  
**찬드라 샤르마 대상 수상**  
**국내서 2번째 영예**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가 최근 인도 트리니반드럼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 생체재료학회에서 최고 연구자에서 주는 찬드라 샤르마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생체재료와 조직공학 분야 석학인 인도의 찬드라 샤르마 교수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것으로 매년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이룬 세계 석학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22회째인 이 상은 세계에서 몇 안되는 유수의 생체재료/조직공학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강 교수의 수상은 국내에서는 2번째, 아시아에서는 5번째다.

지난달 25일 제6차 아시아 생체재료학회 개막식에서 강 교수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강 교수는 개막식 수상기념 기초강연에도 참여해 지난 30여년 동안의 의료기기, 생체재료, 조직공학 및 약물전달 시스템 등의 연구와 개발 등의 역사를 발표해 500여명의 학회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날 강 교수의 수상은 인도 최대 신문인 'THE HINDU' 일간지 2면에 대서특필 되기도 했다.

강 교수는 생체재료와 의약제제, 줄기세포공학, 재생의학 관련 과학 기술연구 분야의 지난 30여년 경력을 지난 세계적 석학으로 SCI급 등 국내외 저널에 650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10권의 저서와 85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강길선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비롯한 재생의학제제 실용화의 실적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그런 만큼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기술을 비롯해 세계의 재생의학 기술의 전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해은 기자

# 경주 따라 걷기 따라

**임실군**  
www.imsil.go.kr

**점진강 자전거길**

물줄기를 따라 병풍처럼 둘러진 산이 마음을 편안하고 이롭게 합니다. 줄줄줄 반짝이는 시냇물과 징검다리엔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는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옥정호 물안개길**

때를 지 않은 오솔길.. 더불어 느끼는 자연의 신비한 풍경, 산과 구름, 물과 바람이 하나가 되는 곳. 옥정호 물안개길입니다.